

문화일보 “불교 명예 훼손 인정”

29일 공식 사과, 정정 보도 및 재발방지 약속 인터넷·언론 종교비하 ‘득실’...“자정노력” 목소리도

신문에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유머를 실어 불의를 일으킨 문화일보가 6월 29일 공식 사과했다.

6월 25일자 신문에 ‘절에서 생긴 사건’이란 제목의 불교 비하 유머를 게재했던 문화일보는 29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가 공식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자, 다음 날인 29일 즉각 ‘불교와 불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문화일보는 “인터넷 유머에서 본의 아니게 사실의 근거도 없이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재해 불교와 불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는 불교와 불교 관계자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25일 오후,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으며 ‘항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내용은 6월 29일자 문화일보에 ‘일말’으로 공고했다.

문제가 된 ‘절에서 생긴 사건’이란 제목의 같은 동자승이 주지 스님이 숨겨준 닭고기를 먹고, 주지 스님은 젊은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 후 불교계에는 “명백한 궤변행위”라며 “문화일보의 훼손의도를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8월 <월간 중앙>이 불교를 폄하하는 글을 게재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데 이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자 불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불교계는 <월간 중앙>의 폐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잡지 경영진이 조계종 총무원을 사과 방문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일이 ‘문화일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신문과 주간 신문 등 유머란을 운영하고 있는 신문에서는 거의 한두 번쯤은 스님이나 사찰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유머가 소개됐다. 대부분 스님들의 육신이나 성(性) 등을 소재로 한 것이고, 선문답을 희화화하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 인터넷 유머게시판이나 각종 성인사이트에는 불교나 기독교 등 종교를 소재로 한 유머가 ‘단골소재’라 할 만큼 부지기수다. 최근에는 글이나 유머에 그치지 않고 네티즌들이 직접 촬영한 스님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게재돼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같은 유머를 언론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면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위원회 권오국 사무국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모두 처벌할 순 없겠지만, 엄연한 공공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에 종교를 폄하하는 유머가 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 조미화 간사는 “종교를 웃음거리로 삼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언론이 사태를 감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이용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관규 교수(동국대 신문방송학과)교수는 “오락성을 추구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존경과 경외의 대상인 종교를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종교 스스로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열정으로 거리 포교 참여”

봉축위, 연등축제 봉축상에 한마음선원 선정

한마음선원이 6월 29일 불기 2551년 연등축제 봉축상을 수상했다.(사진)

봉축위원회는 “한마음선원은 개인, 연회, 장엄 등 정성과 열정으로 연등축제에 참여했으며, 참여인원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전체 행렬시간을 고려해 인원을 분산하고 거리포교에 참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등상에는 도선사와 능인선원이, 정진상에는 봉은사를 비롯한 4개 단체가, 보현상에는 영화사를 비롯한 9개 단체가, 원력상은 동국대를 비롯한 4개 단체가 받았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김경식 경사를 비롯한 8명이 연등



축제 성공을 위한 지원과 도움을 준 공로로 개인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지역 연등축제를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새롭게 개편해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한 대구 봉축위원회에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연등축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부두원 서울시의 원불자회 총무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남동우 기자

“불교학 한국 사상계 주류되길”

김용옥 교수 ‘믿음과 깨달음’ 주제로 토론

최근 신학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가 이번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만난다.

7월 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여름워크숍에서는 김용옥 교수와 불교학자들이 ‘믿음과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2008년 개최될 제4차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준비를 위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임승택 교수(경

북대)가 ‘초기·부파 불교’,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종관·유식 불교’, 허일범 교수(진각대)가 ‘밀교’, 신규택 교수(연세대)가 ‘화엄 불교’, 이덕진 교수가 ‘선불교’ 분야를 맡아 각각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맡은 이평대 교수(충남대)는 “이번 워크숍으로 불교학이 한국 사상계의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동국 108리더스 120명 선발

동국대 리더십 교육 본격화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을 본격 가동했다.

동국대는 6월 26일 동국관에서 리더십 집중 교육대상인 ‘동국108리더스’ 12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동국108리더스 육성사업’은 동국대 108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리더십 교육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동국대는 이번에 선발된 120명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리더십 프로그램(기초·심화교육/리더십 세미나·워크숍 등)과 해외봉사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7월 3일부터 6일,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씩 두 차례에 걸쳐 HRDP(인적개발프로그램) 캠프에서 리더십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8월 11일부터 21일까지는 60명을 캄보디아와 중국 등지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이며, 나머지 60명은 동계 방학 중 해외봉사활동에 파견된다.

김주일 기자

중원 스님 위임 사실 관음사, 주지 권한 약정서 공개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제주 관음사 주지 권한 중원 스님 위임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관음사 주지 직무대리 시몽 스님이 밝혔다.

시몽 스님은 “본사 주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중원 스님에게 위임함은 물론 전 주지 용우 스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사용하는 일까지 위임받았다”며 2002년 11월 29일 작성된 약정서를 공개했다.

시몽 스님은 또 “관음사 성역화 불사와 관련한 업자 선정과 계약, 관음사 운영비 및 불사비용을 차용하는 것까지 용우 스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위임내용은 향후 사회적 문제 발생 시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우 스님은 “관음사 성역화불사추진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주지직무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정우 스님 진산식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 제27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공동위원장 범하·영배·현문)는 7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통도사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로 취임하는 정우 스님 진산식을 봉행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통도사 적멸보궁에서는 적멸보궁 헌다례도 열린다.

허성미 기자

영화 ‘마음의 고향’ 문화재로

극작가 한세희의 희곡 ‘동승’을 각색해 1949년 제작된 영화 ‘마음의 고향’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6월 28일 우리 영화의 태동기에 제작된 ‘마음의 고향’을 비롯한 한국 고전영화 7편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여수령 기자

불서·단주 보내기 운동

전국교정인불자연화협회(회장 임장수)와 연꽃총재단은 오는 7월부터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불서·단주 보내기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포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주일 기자



“자율적·직능중심적으로 조직화 돼야”

실천승가회 ‘미래 신도조직...’ 주제로 세미나 질적 관리 통한 경쟁력 강화 등 필요성 강조

“21세기 급변하는 종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도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효림·성관)는 6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미래지향적 신도조직 운영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사찰경영연구 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신도조직은 운영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찰마다 개성 있고 다양한 목적을 제시하는 신도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도조직이 계속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임원과 평신도 사이에 의사전달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직능중심적, 합의제 중심의 조직화된 신도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업조직이 경쟁력을 갖추듯 사찰 신도조직도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이를 위해서는 △신도조직의 양적 팽창과 질적 관리의 조화 △새로운 불교적 부가치의 창출 △신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참석한 일관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은

기초불교 영어강좌 실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강영성)는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제 6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주 과정으로 중앙신도회관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된다. 불교 교리, 역사, 부처님 생애 등 불교 전반에 대해 강의가 이뤄지며,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02)722-2206 남동우 기자

친공청소·울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1588-7402 인터넷 검색에 **마미로봇**

Mamirobot KMI (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靈鷲叢林 通度寺

寂滅寶宮 獻茶禮 및 第27代 住持 晉山式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는 적멸보궁 헌다례와 제 27대 주지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지로 취임하시는 芽山 頂宇 스님은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주지로 재직하면서 교구와 종단발전을 위해 정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통도사는 천사백년 전 자장율사의 개산이념을 계승하여 민족과 역사발전을 위한 국민수도장이 되고자 합니다. 제 27대 주지 진산식에 법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1년 6월 20일

영축총림 통도사 제27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범하·영배·현문 합장

적멸보궁 헌다례

일시 : 불기 2551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통도사 적멸보궁

주지 진산식

일시 : 불기 2551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대웅전

大韓佛敎 曹溪宗 靈鷲叢林 通度寺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 382-7182 전송 : (055) 382-7196